

# 經濟與件 變化와 對應方向

## I. 國內 經濟與件 變化

### 1. 政治社会的 與件变化

- 60년대 이후 지속된 고도경제성장의 결과, 경제적 욕구가 어느 정도 충족됨에 따라 각계각층의 정치·사회적 욕구들이 분출되고 있으며 이러한 새로운 욕구들의 분출은 앞으로 정치·사회적 변혁을 더욱 가속화시킬 전망이다.
- 정치적으로는 민주화과정을 통하여 기존 정치체제의 변혁을 모색하려는 분위기가 고조되어 있음. 제13대 대통령선거로 현 정부와 여당이 정통성을 확보하게 되었지만 앞으로 다양한 국민의 욕구를 어떻게 충족시킬 것이냐, 그리고 다수대중의 높은 목소리를 어떻게 가라앉힐 것이냐가 커다란 과제임.
- 사회적으로는 성장의 과실을 나누는 과정에서 소외되었다고 믿고 있는 계층의 복지증대 욕구가 더욱 거세어질 것임. 특히 지난해에 발생했던 노사분규가 재발할 가능성이 높으며 새로운 노사간의 질서가 확립될 때까지는 상당 시간이 걸릴 것임. 또한 정부의 역할감소 소를 의미하는 경제민주화 요구는 정부의 역할증대를 의미하는 형평분배 혹은 복지확대

요구와 상반될 수 있기 때문에 두 요구를 수용하는데 있어서 경제·사회적 마찰이 심화될 것임.

### 2. 經濟基調의 變化

- 우리경제는 선진국 진입을 위한 전환기를 맞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안정 성장기조는 지속되면서 국제화, 개방화는 가속화될 전망이다.
- 우리경제는 해마다 50만명 정도로 창출되는 신규노동력을 흡수하기 위해서 최소한 7% 정도의 경제성장을 이룩해야만 하며, 자원이 부족하고 시장이 협소한 우리나라가 이러한 고도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해외시장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으며, 따라서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은 지속되어야 함.
- 물가안정기조는 앞으로도 국제경쟁력 확보와 국민생활의 질적향상 및 형평분배 욕구에 부합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유지되어야 함. 최근 크게 높아진 국민저축률은 물가안정기조를 지탱해 줄 지주가 될 것임.
- 지속적인 수출신장과 고도성장을 이룩하기 위해서 산업구조 고도화정책을 계속 추진하여야 함. 따라서 앞으로 농업분야의 비중은 더욱 감소하는 반면 제조업부문의 비중은 증대될 것이며, 농업부문에서 방출되는 인구는 제조업분야에서 흡수될 것임. 또한 첨단 과학기술부문의 기술개발과 국제경쟁력 제고로 이 부문은 앞으로 선진국시장을 겨냥한 새로운 수출산업으로 등장할 것임.
- 물가안정기조의 정착과 산업구조 고도화의 지속 및 투자율을 증가하는 높은 국민저축률 때문에 국제수지 흑자기조는 지속될 것이며 외

#### 編輯者 註

本稿는 本會의 第60次 理事會에서 車東世 博士(日海研究所 首席研究員)가 발표한 내용중 주요부분을 발췌하여 실은 것임을 밝히며 業界에 유익한 資料가 되길 바란다.

채 상환문제는 수년내 소멸될 것임.

- 성장위주의 정책에서 성장과 분배의 조화를 유지하는 정책기조로 앞으로의 경제운용방식은 정치적 민주화과정에서 분출되고 있는 형평에 대한 욕구와 분배적 정의에 대한 욕구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지 않을 수 없으며, 최근에 실시된 국민복지연금제, 최저임금제 및 농어촌 의료보험 확대정책 등과 같은 경제 사회적 복지정책은 앞으로도 더욱 확대될 것이며 이러한 정책은 경제성장에 적지않은 부담이 될 것임.
- 선진국들이 우리에게 응분의 책임부담을 요구하며 가하고 있는 보호주의 압력과 개방압력을 완화시키고 우리경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자율화, 개방화, 국제화는 가속화될 것임.

### 3. 새로운 挑戰의 登場

- 앞으로 우리경제가 직면하게 될 최대의 도전은 선진국의 보호무역주의와 시장개방 압력임.
- 그 구체적인 사정은 최근 주요 선진국들과의 통상협상에서 잘 나타나고 있는데, 미국과 유럽선진제국들은 시장개방을 위한 압력수단으로 GSP철폐, 301조발동, 보복관세 등의 협상조건을 제시하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주요 선진국의 對韓 무역정책의 변화는 우리경제의 높은 무역의존도와 단조로운 수출상품구조, 집중된 수출시장 등을 고려할 때, 극히 어려운 도전이 아닐 수 없음.
- 중공 및 여타 개발도상국의 추격 또한 세계시장에서 우리의 점유율을 확대하는 데 커다란 도전으로 등장하고 있음. 이들 국가는 낮은 임금과 풍부한 인력을 바탕으로 극히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수출을 할 뿐만 아니라, 선진국들로부터 여전히 특혜대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격경쟁에서 불리한 입장에 처해 있음.
- 우리경제는 대내적으로도 여러가지 도전들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러한 대내적 도전들 역시 우리경제의 성공 그 자체가 초래한 요인들

로서, 정치적으로는 성급한 민주화요구와 이에 편승한 급진세력의 과격한 행동, 경제적으로는 형평분배에 대한 지나친 요구와 사회의 부담능력을 초과하는 복지요구 및 이로 인한 사회불안으로 집약할 수 있음.

- 형평과 균등분배에 대한 지나친 요구는 시장기능을 저해하여 경제의 효율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자칫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도전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음. 경제가 감당해 낼 수 없는 지나친 임금인상 요구와 복지요구는 생산원가를 급등시키고 물가안정기반을 저해하여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기업인의 사기를 저하시킴으로써 고도성장의 지속에 장애요인이 됨.

### 4. 새로운 機會의 到來

- 우리경제가 맞이한 최대의 기회는 한국 및 한국상품에 대한 인식제고라 할 수 있음.
- 우리상품이 선진공업국의 상품이라는 인식은 주요선진국과 여타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모든 세계시장에서 우리상품의 폭발적인 수요를 가져올 것임.
- 특히 서울올림픽은 전세계인들로부터 우리의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성숙도를 인정받고 우리상품을 홍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임.
- 동서 화해분위기의 고조, 서울올림픽을 통한 접촉 등을 계기로 공산권국가들과의 교역확대 가능성이 크게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중공과의 교역은 대폭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 또한 선진국들 및 여타 개발도상국과의 산업협력증대도 우리경제의 도약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기회임. 미국은 자국산업의 경쟁력을 회복하고 일본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하여, 일본은 円高현상을 극복하기 위하여, 유럽의 선진제국들은 낮은 근로의욕으로 인한 생산성저하를 극복하기 위하여 우리와 다양한 형태의 산업협력을 시도할 것임. 중공 및 여타 개발도상국들도 자국의 경제개발에 적합한 기술과 경험의 전수를 위해 우리와의 협력증대를 모색할 것임.

○ 충분한 고급인력의 확보는 우리경제의 커다란 저력임. 특히 아직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고급여성인력은 우리경제의 지속적인 고도성장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인적자원이 될 것임.

## 5. 韓國經濟의 長·短期 展望

- '82년 이후 연평균 9.2%의 고도성장세를 지속해 온 한국경제는 금년에도 8% 이상의 성장을 이룩할 수 있을 것임.
- '89~'90년에는 대외적으로는 세계경기의 둔화, 국내적으로는 그동안의 지속적인 고도성장세에 대한 반작용, 올림픽 이후의 긴장 해이 등의 이유로 성장세가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한국경제는 적어도 향후 5~10년간, 경우에 따라서는 향후 20~30년간 고도성장을 지속하여 앞으로 1세대 이내에 세계 최선진국으로 부상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음.  
(2000년 1인당 국민소득 1만弗, 2010년 2만弗)
- '81년 이후 지속적인 안정세를 유지해 온 物價는 금년이 고비라 생각됨. 금년중 물가상승을 5% 이내로 억제할 수 있으면 안정기조는 지켜질 수 있을 것임.
- 輸出은 지난 2년동안 연 30% 정도씩 신장되어 왔으나 '88년에는 그보다 낮은 15~20% 정도, '89년 이후에는 10~15% 정도의 신장률을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국제수지 흑자는 지난해 100억弗에 가까웠으나 '88년중에는 그보다 낮은 70~90억弗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임. 국제수지 흑자기조는 앞으로 물가 안정기조만 유지되면 장기간 지속될 수 있을 것임.
- 원화의 환율은 지난 2년간 12% 정도 평가절상되었으며 '88년에 다시 10~15% 추가 절상될 전망이다.
- 임금은 지난해 이례적으로 높은 17% 정도의 상승을 기록했으나 금년에는 10% 정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 II. 對應 方向

### 1. 企業의 對應

- 경제환경 변화에 민감해야만 불확실성 시대에 대응해 나갈 수 있음. 향후 4~5년간의 세계 및 국내경제전망, 세계적 산업구조 변화 등을 예의 분석하여야 하며, 특히 일본, 미국, 중공, 소련 등 한국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제대국들의 정치·경제동향에 관한 정보를 신속·정확히 수집·분석하여야 함.
- Global시각에서의 전략적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세계적인 정보화시대의 도래, 제3의 산업혁명의 진행에 대응하고, 우리경제의 개방화시대, 국제화시대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전략적 장기계획 수립이 필수적임. 이러한 전략적 장기계획에서는 세계적 산업조정, 제품의 Life Cycle, 국제경쟁력, 기술수준을 정확하게 평가하여 미래의 유망품목을 선정하고, 해외시장의 구조변화를 반영하여 유망시장을 선정하여야 함.
- 위의 두가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의 조직을 개편해야 함. 정보분석과 장기종합계획수립을 전담하는 기획조정기구를 대폭 강화해야 함.
- 한국형 기업문화를 창조하여야 함. 개방화, 국제화시대에 우리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우리민족의 개성과 전통이 살아 숨쉬는 기업문화창조가 요구됨. 특히 우리의 전통적 가족관, 사회관이 반영된 한국적 노사관계의 확립은 우리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에 핵심적 역할을 할 것임.
- 경기규칙을 준수하여야 함. 우리기업이 국제적으로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고 우리나라가 제2의 일본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지 않기 위해서, 또한 해외시장에서 보호주의를 유발하지 않기 위해서도 우리기업의 경기규칙준수가 요망됨. 국내적으로 기업의 성장과 부의 축적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고 기업과 기업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도 기업은 사회적 책임의식을 가져야 하며 경기규칙을 준수하여야 함.

## 2. 政府의 對應

- 기업환경을 안정시켜야 함. 기업의 안정성장 없이 경제의 안정성장이 있을 수 없으므로 우리경제가 고도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기업환경의 안정이 필수적임. 기업이 기업할 맛이 나고, 기업을 성공시키는 기업인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함. 이러한 관점에서 특히 정치적 민주화의 추진과정에서 분배적 정의의 실현에 지나치게 집착한 나머지 기업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정책을 사용하여서는 안될 것임.
- 실효성 있는 경제자유화의 확대가 요망됨. 정부는 국방과 같은 순수한 의미의 공공재 생산활동만 수행하고 시장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모든 경제활동은 민간기업에 맡겨야 하며, 민간부문의 자율성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정부규제 완화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정부규제가 경제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예는 공산주의 경제에서 가장 쉽게 찾을 수 있음.
- 효율적인 국제수지흑자의 관리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보호주의를 극복하고, 국내물가의 안정지속을 위해서는 국제수지 흑자의 효율적 관리가 요망됨. 특정국과의 국제수지 흑자가 지나치게 확대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며, 시장다변화 노력과 국내시장의 개방촉진 그리고 점진적인 원화의 평가절상을 통하여 국제수지 흑자를 안정적으로 지속시켜야 함.

○ 성장과 분배의 조화를 이룩하여야 함. 소득 분배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실제의 소득분배보다 더욱 나쁘고, 이는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도전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저소득층과 저임금근로자들의 불만을 해소시킬 수 있는 복지정책을 기업과의 협조하에 추진하여야 함. 그러나 정부가 지나치게 형평과 복지를 추구하게 되면 정부의 시장개입 강화를 초래하여 경제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게 되고, 경제민주화에도 역행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복지제공에 있어서도 민간기업이 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稅制면에서의 유인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함. 정부는 저소득층 자녀들도 균등한 교육기회를 갖게 함으로써 저소득층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며, 장기적인 분배적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 Ⅲ. 맺는 말

1988년은 대한민국이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의 분수령에 서게 되는 해임. 따라서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선진국 진입을 위한 준비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야 함. 정치적으로도 새로운 Leadership이 요구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도 새로운 Leadership의 발휘가 요망됨. 경제계에서도 우리기업을 명실상부한 국제화 시대의 선진국 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새로운 Leader들과 엘리트 전문경영인들의 출현이 기대됨.

인정넘친 서울대회 다시찾는 관광한국